여수 지역사회, 박람회 투자금 회수 방침에 '부글부글'

상의 등 5개 시민사회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기재부, 해수부 통해 3천600억원 상환 요구

특별법까지 마련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왔던 여수 지역사회가 정부의 느닷없는 국가투자금 3천600억원 회수 방침으로 충격과 함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수지역발전협의회·여수박람회공공개발시민연대·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5개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에 의해 부채로 전환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3천600억원을 재출자 방식으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 선진강국 건설, 국토 균형발전 시대적 견인차, 기후 위기 해법 제시 등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유치하고 개최한 국가행사였다"며 "정부가 갑자기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을 부채로 전환해 관련 부처에 상환을 요구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실제 2012년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는 당시 3개월간 800만명의 입장객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박람회가 끝난 후 관련 시설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했던 정부는 '매각'과 '사후 활용' 등을 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사후 활용'하기로 하고 2022년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을 개정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박람회 시설 운영 책임을 맡겼다.

이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작했고 앞으로 1년여 후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기재부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선투자금 3천600억원을 부채로 전환한 데 이어, 해수부를 통해 이를 2025년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현 부지와 시설을 당장 몽땅 팔아치우든지, 아니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적자 운영을 하든 말든 우리는 알 바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기로가 될 사안에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을 다해야 할 정부가 외려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10여년 간 표류했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가 이제 본궤도를 찾아가는데 이처럼 찬물을 끼얹는 기재부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의 근간을 준수해 부채로 전환된 국가선투자금 3천600억원을 재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최소한 마스터플랜 완성 후 흑자 전환이 된 뒤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여수박람회 유치와 개최 목적인 해양의 가치 발굴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거점, 소외된 남해안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힘내수(水) 드림 캠페인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16일 광주 남구청사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을로운수사랑봉사회원들이 시민과 버스운수업종사자들에게 얼음생수와 쿨키트를 나눠주는 '힘내수(水) 드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

어등산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순항

보증금·토지계약금 이어 1차 중도금 77억4천만원 납부
현지법인 설립·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계약 체결 '착착'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이 협약 이후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민간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 협약에서 정한 토지비 1차 중도금 77억4천만원을 광주도시공사에 이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세계프라퍼티의 협약이행 보증금(116억원) 및 토지 계약금(86억원) 납부, 3월 현지법인인 ㈜스타필드광주 설립과 기본계획(MP)·설계 용역 계약 체결에 이은 후속조치다.

㈜스타필드광주는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MP)과 설계용역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앞서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22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5년 하반기 펜스 설치 등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착공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콘도'는 2030년, '레지던스'와 '부대시설'은 2033년 완료하는 등 어등산 관광단지가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쇼핑을 함께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양파·마늘 재해보험금 298억원 지급

이상기후 피해 4천597 농가 경영 안정 신속 지원

전남도는 16일 "올해 상반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파, 마늘 재배 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298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2015년 이후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까지 3개월 간 평균 강수량이 10년 간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하고 일조 시간은 24% 감소했다.

이러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양파 3천100ha에서 잎마름과 비대불량 등, 마늘 1천700ha에서 일명 벌마늘이라 불리는 2차 생장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등을 농업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반영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재해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피해 현장 조사를 모두 마치고 보험에 가입한 양파 피해 2천923농가에 226억원, 마늘 1천674농가에 72억원을 지급했다. 시·군별로는 무안군 115억원, 신안군 37억원, 함평군 32억원, 고흥군 11억원, 해남군 11억원 등이다.

실제 이번 이상기후로 피해를 본 무안군의 한 양파 재배 농가는 농가 자부담 26만9천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약 3천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양파와 마늘 피해 농가에게 이번 재해보험금과는 별도로 농약대 등 약 130억원 규모의 재해 복구비를 오는 8월 지급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김 양식 마로해역 40년 분쟁 '마침표'

20% 진도에 반환…해남이 2030년까지 80% 사용 후 재협상

40년 묵은 해남-진도 어민 간 마로(만호)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합의로 해결됐다.

분쟁 어장의 20%를 해남이 진도에 반환하고, 나머지 80%는 해남이 2030년까지 사용한 뒤 재협상하기로 했다.

16일 해남군수협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해남-진도군 수협 간 마로해역 어장 사용에 대해 합의했다.

양 수협의 어장사용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해남이 사용했던 마로해역 1천370ha 중 20%(약 260ha)를 진도에 반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80%(1천110ha)는 해남이 2030년까지 사용한 후 재협상하며 매년 상생협력금 2억원과 행사료 지급의 내용 등이 합의서에 포함됐다.

해남군수협은 20% 반환 구간에서 양식하던 기존 어민들의 어장 분배를 위한 작업과 효율적인 어장 사용을 위한 조정에 나섰다.

수협 관계자는 "합의로 어민들이 오는 9월 채묘 등 김 양식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마로해역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로 개척해 김 양식에 들어갔지만 1993년께 진도 어민들도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어민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2010년과 2020년 소송에 이르렀고 2022년 대법원은 진도 어민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생존권이 걸린 만큼 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갈등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해남 어민 170여명은 지난해 김 양식을 하지 못하면서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컸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21일 해남-진도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로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고 수협간 어장 사용 합의를 이뤘다. /해남=박필용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멋진 바닷가 해안도로에 접한 소액투자매물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산261외4필지 13,000㎡
평당3만원 총가 1억2,800
==========
곡성 국도변 계회관리등 과수원 70,000㎡
체리,단감나무농장,전시,수도,관리사있음
광주에서20분대 전원마을,공장등 최적
급매14억7,000(조정가)
==========
월세많은(110%)돈덩이 부동산
동신대옆 대지3,467㎡ 원룸건물3동,관리1동
(1층점포2칸,2층아파트형 주택150㎡주인거주)
2023,6월올수리 급처분 13억5,000
(현재 보3,000 월1,460만원 받고있음)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